김민환의 세상읽기

천영세,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정당

나는 동갑내기들이 대학을 졸업한 해에 대학에 들어갔다. 늦깎이 대학생이 된 주제에 동년배 친구들과 아기자기한 우정을 나누며 대학생활을 하는 건 아예 꿈도 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공부나 하다가 사회로 나갈 작정이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예감이 빗나가기 시작했다.

신입생 가운데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만학도가 꽤 많았다. 그런데다 그들 대부분이 사회문제에 비판적이었다. 그들과 어울리며 나의 대학생활은 자꾸 애초의 설계도에서 이탈해갔다. 결국 나는 은둔형 공부벌레가 아니라 운동권 학생으로 대학을 마치고 말았다.

되돌아보면,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친구가 사회학과 천영세(千永世)였다. 공부와 학생운동의 두 축 가운데 내 시계추가 공부 쪽에 치우치면 마치 물귀신 같이 천영세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를 만나고 나면 내 시계추는 어김없이 다시 운동 쪽으로 기울곤 했다.

천영세는 1학년을 마칠 무렵에 동기생 가운데 이름을 알 만한 녀석들을 모아 서클을 만들었다. 서클 이름이 '한모임'이었다. 서클은 그 이름처럼 조금은 촌스럽고, 목적의식도 애매모호했다. 모이면 독서토론을 했지만 토론이 끝나고 벌어지는 술판 때문에 서클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다.

2학년 때는 그 모임에 후배들을 대거 끌어들였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장관을 지낸 이상수 등이 핵심이었다. 그들은 그들 나름으로 '민맥'이라는 서클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서클과 '한모임'을 통합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서클 이름은 '한맥'이 되었다.

3학년이 되자 총학생회장 선거가 다가왔다. 천영세는 일찌감치 회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회장을 노리는 학생을 하나하나 만나더니 결국은 운동권 후보의 단일화를 일궈냈다. 선거는 싱겁게 끝났다. 결과적으로 학생회는 서클의 외연(外延)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 전에는 서클이 학생회의 외연이었는데 처지가 뒤바뀐 것이다.

총학생회와 그 구심점인 '한맥'이라는 서클은 그 뒤 한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전국 대학 학생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개헌을 추진하자 대학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그 운동의 한가운데에 총학생회와 '한맥'이라는 서클이 있었지만, 그 뒤에 천영세가 버티고 있었다.

그의 특기는 '한모임'이라는 서클 이름이 암시하듯이 다양한 사람을 한 울타리로 끌어 모으는 것이었다. 결코 잘난 척 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는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한 데 모았다. 그는 그의 공간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서로 양보해서 한 데 어울릴 수 있는 타협공간을 모색했다. 그는 결코 설익은 과일을 따려 하지 않았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천영세는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노총에 들어갔다. 그 시절에 그 단체는 어용의 상징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다. 세상에 갈 곳이 없어 그런 데에 가느냐고 비판하는 친구가 많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우리나라 노동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많은 노동조합 운동가들을 만났다.

몇 해 지나지 않아 그는 민주노총이라는 전혀 새로운 단체가 태어나는 데 산파역을 했다. 민주노총을 구심점 삼아 민주노동당이 등장하고, 막판에 천영세가 그 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한 사실은 두루 아는 바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타협할 공간을 찾는 것을 하나의 습벽으로 삼은 그가 없었다면 아마 민주노동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넘볼 정도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선거 때면 으레 후보는 사람을 보고 찍고, 당은 눈 딱 감고 민주노동당을 찍곤 했다. 그 당에 투표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당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친구 천영세를 의식해서였다.

그러나 이제 그 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천영세는 그 판을 떠났다. 민주노동당의 맥을 이어야 할 통합진보당에는 서울대 수석합격자를 비롯해 머리 좋은 엘리트가 많다. 그런데 왜 통합진보당은 시궁창에 처박히고 말았는가? 나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한 데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동당 같은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은 여전히 필요하다. 국민은 진보주의자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변혁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한다. 진보정당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천영세의 리더십을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할 것이다.

〈고려대 명예교수〉

社 說

F1 개막, 성공 개최 위해 모두 힘 모으자

세계 최대의 스피드 축제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오늘 영암 코리아 서킷에서 개막된다. 4일 주행연습과 5일 예선을 거쳐 6일 정오 슈퍼레이스 결승이 끝나면 이날 오후 3시 대망의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선이 펼쳐진다.

2010년 이래 네번째로 열리는 이번 F1에는 20만 명에 이르는 국내외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랭킹 포인트 1위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세바스찬 베텔(독일·레드불)과 2위인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의 챔피언 경쟁이 영암에서 윤곽이 드러나 이를 시청하기 위한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된다.

또, 우리나라에 북상할 것으로 우려했던 제23호 태풍 피토가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어 쾌적한 날씨 속에 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 개최를 위한 원활한 대회 운영과 준비, 교통 편의와 숙박시설 확보 등 손님맞이도 차질이 없다고 한다. 지난 3번의 대회를 통해 노하우를 쌓으면서 안착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여기에 개최권료를 40% 이상 낮추고, TV 중계권료도 줄여 전체적으로 200억 원의 수지 개선도 기대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빚잔치'라는 데 있다. 이번 대회 비용 중 당초 240억 원을 목표로 했던 정부 지원예산이 100억 원에 불과하고, 전남도가 요청한 내년도 예산 204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연이은 경기 침체로 타이틀 스폰서나 이렇다 할 메인 스폰서가 나타나지 않는 등 대기업 참여가 사실상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티켓 판매, 마케팅도 저조한 형편이다.

그렇다고 F1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정부가 보란듯이 완벽히 치러야 한다. 그게 향후에도 지원 요구를 위한 명분을 갖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교통과 숙박 등 각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하는 것만이 F1의 성공 개최를 이끌 수 있다.

中불법조업 단속 신형장비 투입 서둘러야

조업허가 기간을 앞두고 중국 불법어선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해해경과 서해어업관리단이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한다. 중국 선박들이 쇠창살이나 철판으로 배를 감싸고 칼이나 도끼, 화염병까지 던지며 위협하고 있지만 단속장비가 열악해 우리 대원들이 다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불법어선들이 수백척씩 선단을 이뤄 우리의 공권력과 해양주권을 유린하고 있는데도 마땅한 장비가 없어 단속을 제대로 못한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목포해경은 지난 2일 신안군 가거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 하지만 단속과정에서 임모 순경이 중국어선이 끊은 와이어에 손목 골절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불법 중국어선 3척을 검거하는 과정에서는 중국선원들이 배 옆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식칼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히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어업관리단도 수난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해경에 비해 인원이나 장비가 열악한 서해어업관리단이 단속하면 중국어선들은 떼를 지어 돌격하거나 선체를 포위한다고 한다. 해경과는 달리 무기를 들 수 없는 서해어업관리단원들은 무장한 중국어선들이 몰려있는 곳은 아예 단속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철판을 두른 중국 불법선박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해경은 철판 걸쇠형 등선사다리를 개발해 지난 8월부터 1년간 인천해경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이곳 서남해를 담당하고 있는 해경과 어업관리단에는 이마저도 없다.

정부는 신형 단속장비가 절실하다고 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흘려 들어선 안된다. 신형 단속장비는 우리 단속반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 당장 등선사다리 등 신형 단속장비를 보급해야 한다. 장비의 우위가 불법 중국어선들의 야만적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종교칼럼

미역, 참깨 그리고 물가 관리

종 서

화엄사 수도암 주지

얼마 전 미역을 사게 되었다. 거의 5~6년간 광주 각화동에 있는 청과물 시장 주변의 한 가게에서 미역을 사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미역은 예전과 다르게 양이 줄고 가격은 5000원이나 인상됐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물가 관리나 품질의 규격화 등에 대해서 별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얼마 전 농심 신라면이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를 사용하였다'해서, 제품을 회수하고, 외국에서도 반품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런 것을 보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국민이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농수산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본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또 정부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법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미역을 사고 나서 그 추이를 보면서 이런 제도들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몇 년 전 '신토불이'라는 먹을거리가 한창 유행이던 때 우스개 개그를 들었던 것 같다.

서울에 사는 한 가족이 휴가차 어느 지역을 가게 되었다. 도롯가에 60여 세 되시는 노파 한 분이 '집에서 방목한 토종닭'이라는 팻말을 삶은 통닭 옆에 걸어 놓고 닭을 팔고 계셨다. 그 가족은 그 통닭이 장사하는 할머니가 방목하여 키운 토종닭으로 생각하고 시중 가격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사 가지고 가면서 토종닭을 샀다는 생각에 여간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차를 몰고 떠나자 닭을 다 팔아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노파가 주변에 다른 곳으로 가서, 이미 삶아 놓은 여러 마리 통닭 중에서 한 마리를 들고 나와 아까 그 팻말 옆에서 계속 닭을 팔더라는 개그였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나는 일 년에 필요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시골에서 재배한 참깨를 한 말 정도 준비하곤 한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준비를 못했다. 그래서 신도님들께 올 해는 참깨를 꼭 준비하고 싶다고 했더니, 어느 신도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님 꼭 국산 참깨만 고집하지 마시고 중국산을 사서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사시는 어느 분이 참깨가 필요해서 다른 마을에서 참깨 농사를 하시는 분께 참깨를 부탁했답니다. 어느 장날 시장에서 돌아오는데, 참깨 농사를 하시는 분이 참깨를 털면서 대 여섯 자루에서 중국산 참깨를 국산 참깨와 섞고 계셔서, 그 집 참깨를 사지 않았어요. 요즘 판매되는 참깨의 십중팔구는 모두 같은 사정이니 스님 그냥 중국산 참깨를 드세요."

내가 금번에 산 미역은 예전에 비해보니 양은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든 것 같았다. 그러나 가격은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간 황당한 일이 아니다. 미역이 물가 관리 품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의 삶의 이익과 편의, 삶의 질을 위해서 물가를 관리한다는 생각을 하니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이런 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여 국민들이 황당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無 等 鼓

장흥 청태전

청태전은 녹차를 찌고, 절구에 찧어 만든 떡차로 발효차의 일종이다. 동전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전차(錢茶)'나 '돈차'로도 부른다.

고구려 옛 무덤에서 출토된 적이 있는 것을 보면 삼국시대부터 만들어 마시던 전통 발효차임에 틀림이 없다. 모양이 둥글고 얇은 고구려시대 떡차 한 조각을 표본으로 간직하고 있는 일본인 아오키는 "직경이 4㎝ 정도 엽전 모양의 두께에 닷푼 가량이 된다"고 묘사했다.

그렇지만 청태전의 본고장은 차 생산지인 남해안이고, 중심은 장흥이다. 장흥 보림사에는 보물 제158호인 보조선사 창성탑비가 있다. 이 비석은 차에 관한 금석문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곳에는 신라 헌안왕이 병든 보조선사에게 가장 귀한 차와 약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보림사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차나무가 국내에 들어온 곳으로, 보조선사는 800여 명의 제자들과 차를 마시며 공부했다.

다산 정약용의 죽로차와 초의선사의 보림백모차도 보림사에서 만들어졌다. 모두 보림사 대밭의 찻잎을 따서 아홉번 찌고 말린 최고급 떡차다. 백모차는 보송보송하고 흰빛을 띠는 갓 나온 여린 잎으로 만들었는데 조선후기 문신인 박영보는 '남차병서'라는 글에서 '맑은 자리에서 한 차례 마시고 긴 싯구 20운을 짓게 할 정도로 혜안을 주는 차'라고 극찬했다.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금했던 시절, 당대 최고 권력자인 박영보가 초의선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신분을 초월할 정도로 장흥 청태전의 가치를 높이 산 것이다.

장흥 청태전이 슬로푸드국제본부가 선정하는 '맛의 방주'에 올랐다. 맛의 방주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먹거리를 보존하기 위해 만든 목록으로, 한국 토종 먹거리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장흥 청태전이 슬로푸드로서 보존 가치를 공인받은 만큼 슬로시티 재인증에서 탈락한 장흥군의 명예 회복과 커피에 밀려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녹차산업이 부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기 고

거안사위(居安思危)

김 남 호

신용보증기금 광산지점장

중국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의 임금 도공(悼公)이 충신 위강(魏絳)의 지혜로 이웃 정(鄭)나라를 항복시키면서 받은 예물의 반을 위강에게 공로로 주려하자 위강이 임금에게 말하길, "면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임금께서는 평안할때도 위기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이 즐거움을 언제까지나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데서 유래한 좌씨전(左氏傳)에 나오는 고사성어인 거안사위(居安思危)는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의 일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편안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미국의 양적완화축소, 일본의 방사능문제, 중동의 정세불안 등의 외부적인 문제와 내적으로는 복지공약과 맞물린 증세문제,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사회갈등, 대북 핵문제,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 등 사회불안, 노사갈등, 빈부격차,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하루도 편안히 발을 뻗고 잘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합리적인 합의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행복한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하고 기업과 개인은 끊임없는 먹거리 창출을 위한 아이템개발과 저비용 고효율의 창조적인 투자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는 아마도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미래의 후손들이 던지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는 GDP기준 세계 15위로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하나의 국가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1년간 총 생산해낸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이 우리의 14배, 중국이 약 7배, 일본이 5배로, 장장 20년에 걸쳐 장기불황을 겪은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1/5수준의 경제규모인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위에서 15위로 떨어진 뒤 계속 답보상태로 한국경제가 저성장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투자처를 찾지못한 기업들이 과감한 설비투자를 기피한 것이 주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호남권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16개 지역본부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한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일명 골든북 여름호에 따르면 호남권 경기는 7~8월 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생산은 2분기에 이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요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2분기 수준에 그친 데다 건설투자 및 수출도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의 감소는 고용률 하락은 물론 연관산업인 건설업계, 자재업계, 심지어 음식·숙박업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맞춰 정부가 최근 경제·민생활성화 대책을 통해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기업투자, 민생대책을 내놨다. 기업들의 심리위축으로 설비투자가 부진한 점 등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대표적인 정부정책 수행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설자금보증 공급계획을 애초 2조5000억원에서 4조4000억으로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하반기부터 시행중에 있고, 또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차원에서 특허권, 디자인등록권 보유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보증제도도 확대운용하고 있다.

위기가 곧 기회이듯, 지금이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들이 과감한 시설투자를 통해 고용과 성장을 책임지는 거안사위의 의미를 되새겨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장애아 편안히 수영하도록 편견의 시선 거둬주세요

지적장애를 앓는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방법 중 하나는 신체발달을 위한 운동이다.

그러나 다른 필드 운동은 장애인 본인이나 부모 모두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데, 그나마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수영이다. 그래서 지적 장애인 어린이와 부모들은 부담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을 무척 선호한다.

하지만 그게 안타깝게도 여의치 않아서 지적장애인 부모들은 늘 마음이 아프다.

가까운 지인의 아이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가면 주변의 눈초리가 장난 아니라고 한다. 장애인 아이를 보자마자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사람은 물론이고, 옆에 오기를 꺼려 하거나 흘끗흘끗 쳐다보며 눈치 주는 엄마들도 적잖다는 것이다.

한번은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함께 들어가 수영을 하려는데 수영장에 왔던 다른 아줌마가 옆에서 들으라는 듯 "수영장이 여기밖에 없나? 장애인 시설 놔두고 왜 이런 데에 왔지?"라며 투덜대더라는 것이다. 이 지인은 아이가 그 말을 들었을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며 한숨을 지었다.

장애인 부모들이 일반 수영장에 가기 힘든 것은 이런 사람들의 차갑고 편견 어린 눈초리도 기분 나쁘지만 이런 황당한 말을 일삼는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게 두렵다고 한다. 누구나 다함께 사용하는 공공 수영장을 같이 쓰자는 것인데 주위의 시선이 이렇게 너무 차갑다면 이 또한 공정한 사회가 아닌 건 분명하다.

수영장이 아니면 그나마 훈련과 치료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병원 물리치료실뿐이다. 그 비용은 또 어디서 다 마련해서 대나.

부족한 장애인시설에 대해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관심을 갖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장애인 부모들의 가슴에 멍들게 하는 언행은 삼가야 할 것이다.

▲유병희·광주시 북구 신용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